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청소년 교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3명의 교사와 2박 3일간 시엠립에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교사들의 많은 수가 10월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수련회 참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들에게는 마지막 수련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 조금 더 즐거운 시간, 조금 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다 마치고 교회에 도착해서 아침 기도를 하는데 방금 도착한 아이들이 “내년에도 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자기들도 웃긴지 다들 한바탕 웃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아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해주신 동역자들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캄보디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8월 24-25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롱리와 스라이 랑이 고3이지만 롱리만 졸업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랑은 내년엔 응시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롱리는 무거운 시험의 짐을 내려놓고 9월부터 교회에서 어린이 영어 교실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벌써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하러 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롱리는 그림에 재능이 있고 건축 설계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롱리의 앞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편 1편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만으로 나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듭니다. 나이는 중학교 2-3학년인데 학교는 초등학교 2-3학년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생 같은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상이기는 했지만, 중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 14명의 아이가 암송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인데 시편 1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암송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갔는데 당황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서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하며 이 구절만 서너 번 반복하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성경 암송을 마친 후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시편 23편을 암송한다고 했더니 마치자마자 바로 성경을 펴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공 교회의 주변 환경 문제와 히언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뽀로까 교회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부패한 공무원 서너 명과 마을 이장이 한편이 되어 뽀로까 교회 주변의 땅을 남모르게 명의를 변경해서 소유권 이전 했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명의를 변경된 땅 중에 교회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시작했는데 교회도 소송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9월 추석엔 단기 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여름 사역이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추석 명절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교사들도 봉사하겠다고 많이 지원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교회와 캄보디아 교회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찬이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업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기숙사 학생 관리자로 선발되어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현섭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남은 학업 동안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리라 믿으며 주님의 간섭 하심을 기다립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동역자들도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

캄보디아 선교사 김성길, 정심영, 현섭, 현찬 드림

추신 : 기도편지를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 가운데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메일 주소를 보내 주세요.

이-메일로 받으시면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뿐 아니라, 매달 기도편지 발송을 돕는 형제의 바쁜 손길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큰빛교회 건축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6천여 만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효율적인 공간과 교회에 가장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 2) 사역자(섬낭, 우돔, 바나바전도사)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훈련을 잘 받도록. 특히 빠른 전도사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 3) 큰빛, 뽀로까, 언론폭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 받도록. 어린이 성경 공부반과 영어교실을 통해 양육받는 아이들을 위해. 핍박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 4) 큰빛교회 히연의 치유과 언론폭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뽀로까 교회 토지 분쟁이 잘 해결되도록.
- 5)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현섭이 현찬이가 건강하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연락처

Kim Seong Gil
PO Box 2486 Phnom Penh 3,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855-12-7942 61 / 070-8248-1126 (인터넷전화)

건축헌금 내역

김 00 100,000원
누 계 1,500,000원 (건축헌금을 보내실 때는 꼭 입금자란에 “건축”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이메일 / rokurutom@gmail.com

홈페이지 / <http://rokurutom.net>

카톡 아이디 / [rokurut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ambodiaMission>